이렇게 들었다

교육과 인재양성

"배운만큼 실천할 수 있게"

최근 국가의 교육정책을 보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교사들의 명퇴를 적극 권하던 교육부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난에 허덕이고, 각종 교육정책들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BK 21(Brain Korea)사업만 해도 서울대 등 몇몇 대학의 특정분야를 겨냥한 사업임에도 전 대학에 확대하면서 불공정 선정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 사회뿐 아니라 교계도 승려교육, 신도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통해 지속적인 인재양성에 매진해야 함에도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래불교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는 가장 기초적인 과제이다. 경전가운데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저 어리석은 중생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종내 깨달을 날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부지런히 정진(精進)해 배움을 닦아 자기의 학문을 성취시키는 한편, 중생들로 하여금 이 가르침 중에서 도리에 맞게 학문을 닦아 실지실견(實知實見)하여, 청정한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게 한다. 〈불모출생경〉

▩온갖 존재는 한량이 없으니, 학문을 쌓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빗방울이 떨어져 시원스레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은 점점 모였기 때문이니, 무시윤회(無始輪廻)의 바다에서 보리심을 일으켜 금강도량에 앉아 불과(佛果)를 성취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제법집요경〉

▩곧고 바른 것을 길(道)이라 하고 두려움 없는 곳을 목적지라 한다. 고요하고 한가한 수레를 타고 진실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삐로 삼으며 바른 생각을 재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몰이 삼고 바른 소견을 안내자로 삼는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라도 이것을 타면 생사의 험한 숲속을 지나 편안하고 즐거운 열반에 도달하리라. 〈잡아함경〉

▩사람이 생존 중 아무리 많이 외고 널리 배운다 하더라도,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의(文義)·구의(句義)를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초목을 많이 져 날라 백·천 집에 이른다 해도, 애만 썼을 뿐 아무 소용도 없는 것과 같다. 〈출요경〉

▩차라리 조금 배워 도리(뜻)를 이해할지언정, 많이 배우기만 하고 도리는 이해 못함을 택해서는 안된다. 〈열반경〉

▩비유컨대 그물을 잡을 때, 먼저 그 벼리를 거두어야만 그물코가 다 바르게 되는 것이니, 벼리를 거둘 줄 모른 채 그물코만 먼저 바르게 하려 하다가는, 뒤죽박죽 서로 뒤엉켜버려 풀 수 없게 되고 만다. 배움도 이와 마찬가지다. 〈오고장구경〉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은 응당 네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널리 많이 배워 온갖 음절(音節)과 어구(語句)를 지님이요, 둘째는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사물의 생멸하는 모양을 정당하게 잘 이해함이요, 셋째는 선정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번뇌가 없음이요, 넷째는 파괴됨이 없어서 부처님의 설하신 대로 실천함이다. 〈십주니비라론〉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데 있어서 다섯 가지를 행해야 한다. 첫째는 악을 떠나 선에 나아가도록 함이요, 둘째는 글을 가르침이요, 셋째는 가르침과 계율을 받들게 함이요, 넷째는 일찍 아내를 얻게 함이요, 다섯째는 집안에 있는 재물을 급여함이다. 〈육방예경〉

▩스승은 다섯 가지 일로 제자를 측은히 여기며 가르쳐야 한다. 다섯 가지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배움에 민첩케 하며, 선도(善道)를 가지고 인도하며, 현명한 친구를 따르게 함이다. 〈선생자경〉

▩바른소견과 뜻, 바른 말과 행위, 바른 방편과 생각과 선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배우는 이라 하고, 이를 성취한 사람을 배울 것 없는 이(아라한)라 한다. 〈잡아함경〉

▩천장(千章)을 윈들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경을 많이 윈다해도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 있으리. 한 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도됨만 같지 못하다. 한 글귀를 알더라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 〈법구비유경〉

목탁소리

팔순 앞둔 대불청

도 필 선 〈취재 1부 기자〉

대한불교청년회가 창립 79주년을 맞아 11~12일 양일간 대전 충무체육관과 보문산 일대에서 제18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식전 행사에 이어 열린 불청대회는 청년불자 8백여 명과 종단 내외귀빈, 세계 각국의 청년단체 대표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대불청은 환영사, 대회사를 통해 '불청대회는 한국불교의 희망, 청년불자 하나됨을 위한 자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불청은 1시간 30분 동안이나 불교계 내외 유력(?) 인사들에게 격려사와 축사 등을 토해내게 하더니 시상식을 끝으로 어이없게 불청대회를 마무리했다. 말잔치에 지친 단상 아래에서는 "지겨워" "안 오려고 했는데…" "(축사할 사람이)몇 사람이나 더 남았냐. 이 사람들 말 끝나면 불청대회는 끝이지"라는 원색적인 불만들이 노골적으로 터져 나왔다. 분명 전국에서 청년불자들이 '누가 누가 말 잘하나'를 평가하러 몇시간씩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온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 실망스러웠던 것은 본대회가 끝나고 벌어진 뒤풀이마당이다.

각 지구, 지회별로 모여 앉아 벌인 술자리에서는 어느 지구 지회라고 할 것 없이 중앙 사무국을 성토하는데 열을 올렸고 '중앙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대불청이 안된다'는 한목소리였다. 청년불자들이 고뇌를 함께하며 좀 더 나은 대불청 건설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 '네 탓이오'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한국 최대 청년조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조차 부끄러웠다는 것이 이날 참가한 의식있는 청년불자들의 자탄이었다.

그나마 포교마케팅을 발표하고, 불청의 사회적 역할모색 등에 대해 토론하며 밤을 지샌 경기지구 같은 소조직이 있어 다행이었다.

대불청은 진정 변해야 한다.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초대 가수들의 얼굴만 바뀌는 불청대회는 지양하고 청년불자들에게 유익한 강연과 토론의 장으로 변화를 주어 불청의 내실을 다지고 위상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이 되면 대불청은 창립 80주년을 맞는다. '팔순'이라는 나이에 걸맞는 원숙하면서도 옹골찬 새 청년불자상을 보여주어도 부족한 터인데 겉치레 행사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psdo@buddhapia.com)

열린마당

새시대불교포럼 토론회

불교통일운동의 과제

21세기는 통일의 시대가 될것이다. 통일의 시대를 앞두고 그동안 지속돼온 불교 통일운동의 반성할 점과 그 과제는 무엇일까.

새시대불교포럼(회장 박승원)은 14일 조계종 포교원 4층 강의실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불교통일운동의 반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노귀남씨의 발제와 이승환 조성렬씨의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단체연대로 정보공유 바람직"

노귀남(경희대 강사)

통일운동은 80년대 재야민중운동으로 시작하여 88년부터 시민대중에 의한 운동으로 확산됐다.

교계의 통일운동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를 1기, 1995년부터 현재까지를 2기로 나눌 수 있다. 1기의 활동은 주로 사회민주화운동과 맥을 같이하여 이루어졌다면 2기에는 북한 식량난 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대중화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불교의 통일운동은 불교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띤 '불교자체의 목적'이 분명함과 동시에 전체 통일운동에 조응해야 한다. 이점이 통일사상 또는 운동의 이념적 원리로 원용될 수 있는 불교사상의 원론적 강점은 많다.

제1기 통일운동이 주로 기존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동참함으로써, 독자적 영역개척보다는 진보진영의 운동론으로 활동함으로써 불교의 대중적 정서를 움직이는데 실패했다. 2기의 경우는 진보의 세력보다는 대중과 결합하여 많은 힘을 얻고 있다.

현시기 불교통일운동의 쟁점은 불교계의 대북교류와 지원의 창구문제가 있다. 불교교류의 대표성을 서로 주장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위해 단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동 통일학교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

"북한 인권개선에 관심가져야"

조성렬(국가정책사회硏 상임연구원)

불교통일운동은 먼저 불교이론과 불교다운 통일운동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98년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협등을 구성하고 반핵운동을 제기했지만 이 내용은 우리의 역량으로 상당히 버거운 것이었으며 내적으로도 정립하지 못했다. 불교통일운동은 먼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것인가 아니면 포용정책을 쓸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 스스로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이다.

이와함께 확고한 불교통일운동 사상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 대북활동에만 머물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 다루기처럼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중요하다.

또 시대상황이 바뀌만큼 통일운동을 논함에 있어서 동북아 평화정착노력과도 연계하여 문제를 풀어가려는 대아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라고 본다.

"불교교리 입각 통일이론 개발"

이승환(조국평화통일민족회의 사무총장)

그동안의 불교계 통일운동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충분한 이론개발과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뛰어들었다고 본다. 불교통일운동은 먼저 분단상황에서 불교대중의 교리에 입각한 이론개발을 통한 자기얼굴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불교가 갖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완화시켜 평화를 기준으로 한 세계적인 입장과 방법론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기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통일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과 관련 열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교계가 실시한 통일학교등은 80년대 통일교육의 연장형식에 불과했다. 불교의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동체대비의 정신을 갖도록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2000년대를 앞두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이 불교계가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목.소.리

사찰환경보존 법적 대응을

정기웅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여러가지 면에서 잘 보존돼야할 사찰의 환경피해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찰이 법에 바탕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소개하고 이에 바탕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통사찰보존법을 들 수 있다. 전사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인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찰경내지의 경우 법률의 수용이나 사용또는 처분을 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장관이 동의할 때는 전통사찰의 소속종단 대표와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가 당해사찰 주지와 협의하여 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보존구역에는 불교목적이외의 건조물설치 및 현상변경,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전사법에 해당하는 전통사찰은 860개며 등록 사찰은 837개이다.

198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상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은 국보 및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구역, 사적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보호물보호구역등이며 사찰건조물은 2km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조계종의 유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407점, 시도지정문화재 491점, 문화재자료 228점 총 1126점이다. 이외의 종단은 국가지정문화재 10점, 시도지정문화재 43점, 문화재자료 23점등 총 71점이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물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전통건조물보존법은-축조된지 50년이상된 사찰 건축물로 인근 1백미터 이내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국립, 도립 군립공원 등의 지역은 증개축이 제한받으며 도시계획법은 문화재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건축물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자연환경보존법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생태계보존지역은 법으로 보호받는다. 이곳도 2km이내는 건축물등을 건립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사찰들이 존재하는 곳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지정요청이 늘고 있다.

이같은 법률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첫째 전통사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찰은 지정을 받아 경내지와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찰에 많은 유형 무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자료등을 문화재로 지정받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동식물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내용은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주최로 15일 열린 친환경적 사찰만들기 토론회의 발제문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책이 있는 시간 · 책이 있는 공간 · 시공사

불교학자가 친구 손잡고 떠나는 원효 유적 답사

자 떠나자 원효 찾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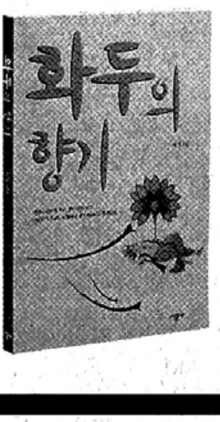
장휘옥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원효 스님의 유적지 한곳한곳을 발바닥에 땀나게 돌아다니며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정리한 글, 코끝이 빨개지도록 추운 겨울날 스님이 귀신 꿈을 꾸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당항성을 찾아다니다 보온병의 따뜻한 물로 타 마신 커피, 자동차 씽씽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친구를 교통순경 삼아 목숨 걸고 찍은 제석사 안내석 사진, 답사하다 궁금한 점이나 풀지 못한 문제는 돌아와서 공부하고 서로 얘기하고 다시 해결하러 떠나면서 만든 정리 노트…… 불교학자와 늦깎이 주부 학생이 답사 여행을 하면서 나누는 수다와 잡담, 『자 떠나자 원효 찾으러』는 그 생애와 사상을 접하는 방법에서부터 스님의 무애행을 닮았다. 그리고 이렇게 1300년 전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행 속에서 어느새 자신과 삶과 세상을 되돌아보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설명이 끊어진 자리, 언어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화두(話頭)는 탄생한다.

화두의 향기



'삶의 곁에 두고 틈틈이 되새김질할 나만의 화두가 하나쯤 있었으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장으로만 생각했던 화두를 여기서는 내 삶의 동반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르게 읽습니다.
마치 시집 읽듯이 천천히 곱씹어서.
그러다 마음에 맞는 화두 하나 골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삶의 어느 언저리에서 문득 연꽃 한 송이 피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청 지음 / 신국판 / 값 7,500원

새롭게 정리한 아함의 세계

精選 아함경

이연숙 뽑아옮김 / 4×6배판 변형 / 양장본 / 값 24,000원

전체 아함 가운데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경들을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 새로이 체계적으로 엮은 책. 아함의 방대한 분량에 겁먹고 가까이 대하지 못했거나, 단편적인 부분만을 접해 왔다면, 이제 『精選 아함경』을 통해 아함뿐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담겨 있는 불교 전체를 정리해 보자.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시공사